

서정주의 발굴 시 연구

- 해방기부터 한국 전쟁기 사이를 중심으로

하 채 현 (극동대) · 황 태 목 (전주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3. 발굴 시의 특징과 양상 |
| 2. 서지 검토를 통한 발굴 시의 예비적 고찰 |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서정주 시세계에서 누락되어 있던 5편의 시편을 발굴하여 서정주 초기 시의 특징과 시세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발굴 시편이 서정주 시세계에서 가장 불투명했던 해방기와 전쟁기의 시작 활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좋은 과제로 수용할 만하다. 본고는 발굴 자료의 서지 사항과 발표 매체의 특성을 검토하고 발굴 시의 경향과 특성을 개괄하였다. 발굴 시는 1946년부터 1952년까지 전주 지역에서 발간된 매체에서 발견된 것들로 「이별의 노래」, 「쭉나무」, 「태산목련송」, 「소품초」, 「낮 하늘 아래서」이다. 이 시기는 서정주가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새롭게 모색한 시기로 자아 부정으로부터 생명 발견, 고향과 동양 전통, 영원으로의 회귀 등 다층적인 경향이 혼재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양상을 서사 지향, 생활의 구체 상, 지역 색 등으로 논의에 올렸다. 다만 경향과 지향을 밝힘으로써 서정주 시세계의 성찰과 모색 시기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고는 서정주 시세계의 빈틈을 메우고 서정주 시 논

* 하채현 1저자, 황태목 교신저자

의를 재구성할 촉매체가 될 것이다. 앞으로 작품 연보의 완성도를 높여서 온전한 서정주 연구가 촉발되기를 바란다.

핵심어 : 서정주, 발굴 시, 해방기, 전쟁기, 모색기, 서사 지향, 지역 색, 촉매, 완성

1. 서론

미당 서정주(1915-2000)는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벽」이 당선되면서 등단한 이래 1941년 첫 시집 『화사집』을 시작으로 1997년 마지막 시집 『80소년 떠돌이의 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품을 남긴 시인이다. 개인적으로는 친일 전력 등 잘못된 행적 때문에 여러 비판을 받고 있으나 시인으로서 60년 간 1,000여 편의 작품을 문학사에 남길 만큼 창작에 심혈을 쏟은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서정주와 그의 시에 대한 평가는 평가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본고는 기왕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러한 논의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던 서정주의 발굴 시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들의 됃됨이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서정주와 같이 작품의 수가 많은 작가의 작품 서지는 불완전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시 작품들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음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서정주 시의 전모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여기 소개하는 작품은 「이별의 노래」(『전북공론』 창간호, 1946.7), 「태산목련송」·「소품초」(『남풍』, 1951.11), 「쭈나무」(『전통』, 1951.12), 「낮 하늘 아래서」(『전북일보』, 1952.8.15.) 등 다섯 편으로 모두 전북지역에서 발행된 잡지와 신문에 수록되어 있다.¹⁾ 이 다섯 편은 1946년 7월부터 1952년

1) 여기에 소개된 5편의 작품 중 「이별의 노래」, 「태산목련송」·「소품초」, 「쭈나무」는

8월 사이에 발표된 것으로 해방기와 한국전쟁기 서정주의 작가의식과 초기 시²⁾의 한 특징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나 이들 자료는 최근의 『미당 서정주 전집』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 하겠다.³⁾

그동안 이 시들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데는 서정주의 그 어떤 시집에도 실리지 않은 것이 한 원인이 될 것이다. 제2시집 『귀축도』(1948)와 제3시집 『서정주 시선』(1956) 시기에 발표된 이 시들이 왜 서정주 연보와 시집에 누락되었는지는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 작가 스스로 수준 미달의 작품이라 생각하여 아예 목록에서 지워 버린 작품일 수도 있을 것이며, 외부 요인에 의해서 자료가 망실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기억에서 지워진 작품일 수도 있다.⁴⁾ 그러나 그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서정주 연보에 빠져 있는 이 시들은 앞으로 그의 작품목록에 추가되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잠시수집가 서상진 선생님의 도움으로 서지와 원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의에 감사드린다.

- 2) 서정주의 초기시는 일반적으로 『화사집』(1941)과 『귀축도』(1948)로 거론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한국전쟁기에 발표된 시도 초기시로 분류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3) 『미당 서정주 전집』 목록에 나온 해방기와 전쟁기의 미수록시는 15편으로 파악된다. 기존 시집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들의 서지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해방기 : 「밤」(『개벽』, 1946년 1월호), 「피」(『동아일보』, 1946.4.30.), 「백옥루부」(『수산경제신문』, 1946.6.10.), 「통곡」(『해동공론』, 1946년 12월호), 「춘향옥증가」(『대조』, 1947년 5월호), 「춘향옥증가 3」(『대조』, 1947년 11월호), 「그날」(『예술조선』, 1948년 2월호), 「곰」(『새한민보』, 1948.2.15.), 「간디 송가」(『평화일보』, 1948.2.17.), 「눈」(『평화일보』, 1948.2.24.), 「저녁노을처럼」(『백민』, 1948년 4.5월호), 「8월 15일에」(『경향신문』, 1949.8.15.)
전쟁기 : 「선덕여왕찬」(『문예』, 1950년 6월호), 「일선행차 중에서」(『전선문학』, 1950년 10월호), 「영도일지 (1)」(『문예』, 1950년 12월호)
- 4) 이에 대해서 최현식은 작품을 따로 스크랩하거나 모아놓지 않는 미당 특유의 버릇이 미수록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한다.(최현식, 「전통의 변용과 현실의 굴절:1945-1955년 서정주의 시집 미수록시 연구」, 『문학평론』, 1997년 봄, 277면 참조.)

시집에 누락된 서정주 시에 대해서는 그간 몇몇 연구자의 논의가 있어 왔다. 앞서 송희복은 신문과 잡지에 흩어져 있던 서정주의 시집 미수록 시 12편을 발굴·소개하였고, 최현식은 『화사집』(1941)부터 『서정주 시선』에 미수록 된 1955년 이전의 시 37편을 소개·해석한 바 있다.⁵⁾ 이러한 작업은 기존의 시집에서 누락된 시들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서정주 시 연구의 확장에 한층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다섯 편의 시들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작품들은 서정주의 시세계에서 가장 불투명한 지점이기도 한 해방기⁶⁾와 전쟁기의 시작 활동을 일정 정도 보여준다는 점에서 좋은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탐색은 서정주 초기 시의 한 특징과 시세계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과제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다섯 편의 발굴 작품을 통해서 해방기와 전쟁기 서정주의 시작 활동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발굴 자료의 서지사항과 발표 매체의 특성을 간략히 검토한 다음, 3장에서는 이 시기 서정주의 발굴 시가 갖고 있는 의미를 시적 경향의 변화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발굴시의 의의와 남은 과제에 대하여 기술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자료 발굴의 의미와 함께 해방기와 한국전쟁기 서정주 시세계의 의미망을 재구성함으로써, 향후 온전한 작가론 서술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 5) 송희복, 「서정주 초기시의 세계」, 『현대시학』, 1991.7. ; 최현식, 「서정주의 시집 미수록시 연구 I -해방이전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문화회 편, 『1950년대 남북한 시인연구』, 국학자료원, 1996. ; 최현식, 위의 논문 참조.
- 6) 허윤희, 「해방 이후의 서정주 -1945~1960」, 『민족문학사연구』 제36권, 민족문학사연구소, 2008, 237-238면.

2. 서지 검토를 통한 발굴 시의 예비적 고찰

서정주의 시집과 전집 목록에 빠져 있는 해방기와 전쟁기의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서지 검토와 함께 작품이 발표될 당시의 문학현상, 예컨대 시인의 창작 환경과 매체의 특성을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서정주의 시세계에 있어서 1946년은 해방기 시작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1945년 단 한 편에 그쳤던 작품 발표가 이듬해 무려 16편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⁷⁾ 그런 의미에서 1946년은 서정주가 시인으로서 자

7) 허윤희에 따르면, 1946년에 발표된 작품은 모두 18편이나 이 가운데 「노래」, 「蓮」, 「절구이수」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작품이다.(허윤희, 위의 논문, 244면, 주6) 참조) 그렇게 볼 때 이 시기의 작품은 실제 확인된 15편과 새롭게 발굴된 1편을 합해 최소 16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 목록과 서지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작품 제목	게재지	구분
1946	밤	개벽 1월호	미수록
	골목	예술 1월호	『귀촉도』
	노을	예술부락 1월호	『귀촉도』
	문열어라 정 도령님아	조선주보 1월 8일	『귀촉도』
	푸르른 날	생활문화 2월호	『귀촉도』
	노래	중성 2월호	미수록
	서귀로 간다	민심 3월호	『귀촉도』
	연	예술부락 3월호	미수록
	혁명	건설출판사	『삼일기념시집』
	목화	여성문화 4월호	『서정주 시선』
	피-윤봉길 의사의 날에	동아일보 4월 30일	미수록
	전우의 노래	신문학 6월호	『귀촉도』
	무제	문예신보 6월호	『서정주 시선』
	백옥루부	수산경제신문 6월 10일	미수록
	이별의 노래	전북공론 7월호	미수록
	누님의 집-H여사에게	민주일보 7월 21일	『귀촉도』

신의 위상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노력한 시기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대로 서정주는 해방 직후 임화 중심의 조선문학가동맹 측과 잠시 동안 관련을 맺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활동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문단 활동은 조연현과 김동리와 의 교류 속에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1946년 4월 김동리, 조연현 중심의 조선청년문학가협회 창립과 동시에 시분과 임원에 취임하게 된다. 그리고 이즈음에 그는 사회주의를 외래적이고 일시적인 사조로 부정하면서 순수문학 전통 안에서 민족이라는 이념을 절대화하는 작업을 모색해 나간다. 「정통과 속류」(『가정신문』, 1946.6.4), 「문학자의 의무」(『동아일보』, 1946.7.16), 「밀가루와 생리」(『제3특보』, 1946.12.4) 등이 그 예라 할 것이다. 서정주의 이런 활동들은 그의 정치적·문학적 실천이 점차 우익에 치우쳐 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시기에 서정주는 시 「이별의 노래」를 『전북공론』 창간호에 발표하게 된다. 「이별의 노래」가 실린 『전북공론』은 해방기 전주에서 발간된 전북지역 최초의 월간 종합지로서, 창간호의 편집 겸 발행인은 김광필(金光弼)이 맡았다.⁸⁾ 그런데 이 『전북공론』이나 발행인인 김광필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게 없고 남아있는 기록도 거의 없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전북공론』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1946년 5월에 창간되었고 『삼남공론』으로 개명되어 1950년까지 발간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⁹⁾ 하지만 기왕의 정리는 실증적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까닭에 창간 시기부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허윤희는 ‘서정주가 1946년에 발표한 시들의 지면은 대부분 조선문학가동맹과는 이념적으로 반대의 편에 있는 문인들에 의해 발간되고’¹⁰⁾ 있음을

	절구이수 석굴암 관세음의 노래 통곡	중성 9월호 민주일보 12월 1일 해동공론 12월	미수록 『귀족도』 미수록
--	---------------------------	-----------------------------------	---------------------

8) 창간호는 1946년 6월 30일 동양인쇄사(李鳳圭)에서 인쇄하여 7월 1일 전북공론사에서 62면으로 발행하였다. 판권지에 매월 1일 발행이라는 표기가 있으며, 판매가는 이십 원으로 나와 있다. 현재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창간호와 4호(1946.10월)뿐인데, 4호는 아단문고가 소장하고 있다.

9) 대표적으로 한국문인협회 전북지회 편, 『전북문학사』, 신아출판사, 1996.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전북공론』 창간호의 목차¹¹⁾를 살펴보면 서정주 시작품과 함께 해방 직후 좌익 계열에서 활동한 이태준의 글이 실려 있으며, 이념적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글들이 혼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월간 종합지라는 성격에서 보이듯 문학은 물론 여러 분야에 걸친 문화 정보들이 나란히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전북공론』은 중도적 범주의 지역 잡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¹²⁾

그렇다면 서정주는 왜 굳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다소 배치된 『전북공론』에 작품을 발표하게 된 것일까?

藝術民族 朝鮮의 앞길은 洋洋하다. 先天으로 傳해온 緻密한 이 感覺과 纖細한 官能으로 우리는 이제부터 各分野에 있어서 長足の 進歩를 이르켜 우리民族중에서 「베-토벤」이상의 樂聖과 「썬빈취」 또는 「마이컬엔질로-」이상의 藝術家들이 簇出할 素地와 環境을 닦으며, 또는 世界言語學上에 그 最高峰을 걸튼 우리言語로서 「시엑스피어」 이상의 天才를 길러 「乙支文德」 「金庾信」 등의 우리 英雄과 「安重根」 「尹奉吉」 등의 義士劇, 또는 朝鮮의 「새沈淸傳」 「새春香傳」으로 하여 全世界의 囑采를 받게해야 할것이다. 너는 「너의自身을알어라」 古代希臘 「어폴로-」 新殿에 써부친 託言이 곳 오늘날 우리 三千萬 一個人 一介人에주는 말일 것이다.

10) 허윤희, 앞의 논문, 246면.

11) 창간호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창간사 - 本社主幹 金光弼 / 사설 - 全羅北道知事: 鄭一史, 前本道副知事: 존·엠·클로마, 全州府尹: 林炳億 / 평론 - 文學者の 使命: 李泰俊, 썬르세비끼의 脅威: 李錫新, 蘇聯勞動者의 實際生活: 金基甲, 主義와 具體的 妥當: 朴晚元, 朝鮮은 어데로 가는가: 裴恩希, 페니실링의 效果(軍醫少佐 오-빈슨 氏의 談話): 金永默, 美國文學者의 一傾向: 高尚洪, 朝鮮民族의 起源: 高舜錫 / 시 - 復疆土有感: 崔秉心, 時調選, 離別의 노래: 徐廷柱, 꽃씨를뿌리오리다: 金木浪 / 수필 - 青春: 白楊村, 音樂의 自由性: 河牧園 / 소설 - 썩은개살구(제1회): 金海剛 / 기타 - 漫畫(獨立列車), 各國의 選舉年齡, 喫煙室, 世界珍聞, 소리, 全北日誌 / 社告, 編輯後記’

12) 1946년 10월에 간행된 『전북공론』 4호의 경우는 특집으로 김일성과의 인터뷰인 ‘김일성장군회견기’가 있기도 하다. 당시 인터뷰를 취재한 박상호에 따르면, 대동강을 헤엄쳐 건너가서 인터뷰한 이후 다시 남하하다가 월남하는 북한 주민으로 오인한 북한군에게 총알 세례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한다.

이 貴重한 時機에 있어서 道民의 公正한 輿論을 이르켜 民族의 갈길을 正軌로 발키며 이제바야흐로 亞細亞 「루넛싼스」의 搖籃地로서 巨大한 再出發을 하랴고 胎動하는 新生朝鮮民族의 聖스러운 使命達成에 이바지하고자 物質的으로나 地球的으로나 모-든 難關을 突破하여 些少한 形態이나 發刊으로 보게 된 것이 本 『全北公論』이다.

이 公論은 中央文人과도 緊密한 連絡을 取한 同時에 題號가 가르킴과 같이 오로지 全北을 主體로하고- 또 그러한 意圖 밑에서 그 執筆者는 一二의 例外는 除外하고라도 모두가 全北人으로 되어있다. 또 以後로도 그 方針을 걸어갈 것이다.

本 公論의 發展은 곳 全北文化向上의 具體化-또는 「빠로메터」일 것이며 이 公論을 媒介物로하여 唇齒輔車 本道文化運動은 차츰 그 바른길을 慕進할 것이다.

本道를 사랑한다는 意味에 있어서 또 우리 朝鮮文化를 世界에 빛나게 하겠다는 意欲下에 있어서 江湖諸賢은 널리 本誌를 愛護 또는 鞭撻하여주시기를 빌어마지않는다.¹³⁾

창간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전북공론』은 ‘도민의 공정한 여론에 입각한 지역문화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올바른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전북공론』지는 지역 문화의 형성에 ‘전북’이라는 주체를 내세우며 『전북공론』이 선언한 문예부흥 운동 역시 ‘전북’이라는 기치 아래 전개됨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창간사를 보면 『전북공론』은 창간 당시부터 지역적인 특성을 담아내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을 가장 두드러지게 말해주는 장면이 바로 1-2인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북인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서정주와 『전북공론』과의 연결 맥락이다. 인용문에서처럼 전북 출신의 중앙 문인, 예컨대 서정주와 긴밀한 연락을 통해 잡지가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잡지 발행 이전에 편집인의 연락과 청탁이 있었

13) 김광필, 「창간사」, 『전북공론』, 1946.7.1, 4-5면. 이하 『전북공론』 인용은 본문에서 작가와 작품, 인용 면수를 밝히는 것으로 대체한다.

고 서정주는 그 청탁을 수락하고 작품을 잡지사에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된다. 『전북공론』이 작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일정 부분 다르지만 자신의 향토에서 창간되는 잡지에 힘을 보태주는 의미로 수락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통해 당시 『전북공론』 창간호에 서정주의 시가 게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전쟁 발발 후인 1950년 6월 28일 서울이 함락되자 서정주는 아우인 서정태와 대전으로 피신하여 그곳에 있던 김광섭, 조지훈, 임금재, 조영암, 이한직, 김송 등과 함께 문총구국대를 결성한다. 이후 8월에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찾아다니며 종군 활동을 하다¹⁴⁾ 9·28 수복으로 상경했고 1951년 1·4후퇴로 다시 솔가하여 고향 인근의 진주를 찾게 되었다. 이와 관련 김해강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6·25사변이 일어나고 1·4후퇴 때 나는 상처한 몸이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을 떠날 수 없었다. 모든 일을 하늘에 맡기고, 집에 머물러 있던 때이다. 어느 날 오우인데, 웬 사람이 우리 집 대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다. 누구인가 하여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는 나를 부르고 있었다.

「아니, 선생님. 저도 모르십니까? 서정주올시다.」

나의 손을 꼭 잡은 미당은 활짝 웃었다. 그제서야 나는 그를 알아차리고 반갑게 손을 흔들어 맞이하였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으나, 한사코 뿌리치면서 빨리 시내로 나가자고 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대문 밖으로 나왔다. 대문 밖에는 河喜珠라는 사람이 같이 와 있었다.

「자, 희주! 자네가 앞장서게.」

미당은 호탕하게 웃으며 교동의 무슨 기생집으로 나를 안내하였다. 우리 셋은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정담을 나누었다.

「선생님, 저는 전주에 온 것이 피난 온 것이 아니라, 종군 온 곳입니다. 저와

14) “나와 지훈은 또 정훈국장의 의뢰로 전라북도의 도청과 방송국들을 찾아다니며 스피커를 거둬들이는 일까지 맡아, 전주와 이리와 광주, 목포 등지를 쓸고 다니며 그 일을 하는 한편, 또 그 고장의 방송에도 참가했다.” 서정주, 『미당 자서전2』, 민음사, 1994, 244면.

함께 가십시오.」

술이 거나하게 된 미당은 자기와 함께 종군할 것을 종용했으나, 나는 상처한 몸이고, 아직 나이 어린 아이들만 남아서 갈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¹⁵⁾

김해강의 회고에서 나타나듯, 1951년에 서정주는 전주의 문필가들을 규합하여 ‘문화예술인총연합회 전북지부’의 지부장으로 종군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에 별다른 조직 활동이 없었다는 점, 관련 자료도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 문총지부는 명목뿐인 단체로만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때에 서정주는 지역의 후배 시인인 이철균, 하희주의 주선으로 전주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신인과 학생들의 문학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발굴시 「태산목련송」, 「소품초」(『南風』), 「쭈나무」(『傳統』) 등은 바로 이 시기에 발표된다.¹⁶⁾ 아래에 『남풍』의 권두언과 『전통』의 편집후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시를 하는 일을 한 生命의 淨化 또는 그 發展的 繼續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말로 시를 쓰는 일을 한 練習이라고 생각하는 湖南의 몇몇 글짓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이 조그만 冊을 두 달 만에 한 卷씩 내놓기로 하였습니다. 冊題를 「南風」이라 한 것은 그 生長의 便인 薰薰하고 多情하고 知慧로운 느낌을 取하였으며 또 한 쪽으론 이 冊이 주로 湖南 사람들의 일이라는 뜻도 포함시키고저 한 때문입니다.¹⁷⁾

옛제튼기쁘다 韓國詩壇의 거장이신 徐廷柱 先生 詩人 李轍均 河喜珠 先生 그리고 特別히 여기에 조해가 깊은 現 敎長先生 金敎善 先生님들을 모시고 뛰어난 傳統을 물려받아 더욱 찬란한 傳統이 老松台 高운터에 불기듯처럼 서리라 믿으니 기쁜마음 禁할길없다.¹⁸⁾

-
- 15) 김해강, 「나의 문학 60년」, 최명표 편, 『김해강시전집』, 국학자료원, 2006, 801-802면.
16) 1950년대 전주 지역 동인지에 대한 서지적 검토는 하채현·황태목, 「1950년대 전반기 전주 지역 동인지 연구」, 『국어문학』 67, 국어문학회, 2018, 291-324면 참조.
17) 서정주, 「드리는 말씀」, 『남풍』 1집, 기산당, 1951, 1면. 이하 『남풍』 인용은 본문에서 작가와 작품, 인용 면수를 밝히는 것으로 대체한다.

「태산목련송」과 「소품초」가 실린 『남풍』¹⁹⁾은 신인과 기성 작가들이 모여 만든 시 동인지로, 1951년 11월 7일 전주의 杞山堂에서 발간되었다. 서정주, 이철균, 은안기, 하희주, 김교선, 김종빈 등 6인이 동인으로 참여했으며, 이철균은 편집과 발행인을 겸하였다. 이 『남풍』에는 총 13편의²⁰⁾ 작품이 실렸는데, 서정주의 글은 2편의 시작품 외에 앞서 인용한 산문 「드리는 말씀」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쭉나무」가 실린 『전통』²¹⁾은 전주고등학교 문예부 학생들의 시 동인지로, 1951년 12월 23일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한국전쟁기와 1950년대 전주는 학생동인지가 여럿 발간되는데, 이 가운데 『전통』은 『죽순』²²⁾의 맥을 이어나간 대표적인 학생동인지라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남풍』과 『전통』 두 잡지 모두 서정주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드리는 말씀」에서 확인되듯이, 서정주는 ‘호남(전북)의 몇몇 글짓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작품집을 두 달에 한 권씩 내놓기로 의기투합하였다는 것’ 그리고 ‘호남(전북) 사람들의 문학 활동을 알리기 위하여 제호를 『남풍』이라 하게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을 보면 지역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문단 활동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이 동인지를 중심으로 지역 문학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동인지 『남풍』의 발간은 서정주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전쟁이 발발

18) 「편집후기」, 『전통』, 전주고등학교(문예부), 1951.12.23, 50면. 이하 『전통』 인용은 본문에서 작가와 작품, 인용 면수를 밝히는 것으로 대체한다.

19) 『남풍』은 1집이자 창간호를 끝으로 발간이 중단된다. 그 구체적인 원인은 자세하게 알 수 없으나 개개인의 문단활동과 경제적인 사정도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 「시- 서정주: 「태산목련송」, 「소품초」 / 은안기: 「고원풍경1 국화」·「고원풍경2 낙엽」·「고원풍경3 선퇴」 / 이철균: 「염원」·「낙과」·「하늘」·「선방」 / 김교선: 「새꽃」 / 하희주: 「구름 노래에 맞추어」·「산옹」 / 번역- 김종빈: 「괴-테의 눈」

21) 『전통』은 1호를 끝으로 『全高』로 개명되는데, 『全高』는 1953년 12월 20일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22) 전주 북공립중학교 문예부 학생과 교사의 글들을 묶은 비정기 문학 회람지로, 타블로이드판 신문으로 발행되었다. 현재 4호(1947.6.1.), 5호(1947.7.1.), 6호(1947.11.1.), 10호(1948.12.10.)가 전해지고 있다.

함에 따라 중단되었던 시작 활동을 이렇게나마 이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한편 초기의 『화사집』을 비롯하여 『서정주 시선』에 나타난 시에는 무엇보다도 생명 의식에 대한 탐구가 주류적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인용한 「드리는 말씀」의 경우에도 이러한 ‘생명 의식의 발로’가 명시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이 권두언에서 그는 시를 짓고 하는 일은 “생명의 정화 또는 그 발전적 계속의 길”이며, 시를 짓는 사람들의 활동은 ‘생명 영위의 기반에 어긋나지 않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의 생명에 대한 사유가 한국전쟁 시기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서정주가 『진통』 창간호에 시작품을 발표하여 학생들의 창작활동을 격려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인용한 편집후기에서 보듯, 시인이자 교사로서 서정주는 그 존재만으로도 예비 문학도들에게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서정주의 창작 지도와 발표는 지역의 학생 문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에 충분한 지침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당시 학생 문사로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서 다수가 뒷날 중앙문단에 데뷔한 것을 통하여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보아 이 무렵 전주에서 서정주의 활동은 전쟁기 전북 지역문학과 학생문단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만하다.

한편 서정주가 1952년 8월 15일자 『전북일보』에 시 「낮 하늘 아래서」를 발표할 때는 광주에 내려와서 조선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무렵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 그는 광주의 김현승 집에 머물며 『신문학』을 비롯해 『시정신』, 『시와 산문』 등의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하는 한편으로 가람, 신석정, 김해강 등 전북지역 문인들과의 교류를 견인함으로써 광주·전남 시문단의 지평이 확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그의 시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무등을 보며」와 「상리과원」의 초고 또한 그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서정주의 발굴 시편은 서정주 시세계에서 가장 불투명했던 해방기와 전쟁기 전주 지역의 매체(잡지와 신문)에 발표되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 시들을 쓰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잡지사

의 청탁 및 전주와 광주 지역 문단에서의 활동과 연관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전주와 광주를 오가면서 펼쳤던 그의 문학적 행적들은 문학적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되었고, 후학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서정주는 전쟁기 전북과 광주·전남 시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가라 할 것이다.

3. 발굴 시의 특징과 양상

서정주 초기 시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본고는 미당 초기 시의 기존 논의들을 모두 포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정주 초기 시 세계에 대한 논의들에 선불리 끼어 들어갈 수 없다. 그보다는 발굴 시 양상들이 기존 논의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 시들이 서정주 초기 시의 경향에서 어느 정도의 좌표에 놓여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여 서정주 시세계를 지역 발표 지면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발굴 시의 특성은 시가 쓰인 시기와 시를 발표한 매체의 관계를 통해서 규명된다. 1946년부터 1952년 동안 서정주는 『귀족도』(1948년)와 『서정주시선』(1956년)을 묶었다. 따라서 두 시집에 실린 시와 발굴 시²³⁾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발굴 시의 특징을 드러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귀족도』는 출간 시기가 본고의 발굴 시편의 앞뒤에 놓여 있어서 본 장에서 특히 주목하는 시집이다. 앞질러 말하자면 본고는 발굴 시 다섯 편에 한정하여 분석하되 서정주

23) 발굴 시의 발표 지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고의 2장 참조

년	월	발표 작품	발표 지면
1946	7	이별의 노래	전북공론
1948		제2시집 『귀족도』(선문사) 출간	
1951	11	태산목련송, 소품초	남풍
	12	쭉나무	전통
1952	8	낮 하늘 아래서	전북일보
1956		제3시집 『서정주시선』(정음사) 출간	

전체 시편의 그림에 편입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다. 발굴 시의 양상을 확인하고 서정주의 지역 동인 활동 등의 의미를 탐색할 것이다.

3.1 서사지향성

해방기와 전쟁 시기 서정주의 시적 변모는 뚜렷하다. 본고가 주목한 발굴 시는 서정주의 시적 변모 시기와 겹친다. 세계와 자아의 관계 정립 이후 서정주가 시인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시기가 바로 해방기와 전쟁 시기다.²⁴⁾

내게도 일찍은 안잊히는 것들도 있었던가.

여러 새 우는 여러 산 옆을
고삐에 풍경을 단 소처럼 지내와서
인제는 발아래 못물을 본다.

- 「小品抄」, 『남풍』, 5면, 1-4행²⁵⁾

또 하나의 未堂 서정주의 자화상²⁶⁾이 위 시편에 담겨 있다. 해방과 전쟁 와중을 시인은 ‘새 울고 산을 지나 왔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을 ‘고삐에 풍경을 단 소’로 비유하면서 잊고 있었지만 안 잊는 것들에 대하여 상기한다. 스스로를 못물에 비춰보면서 다시금 되새김질 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성찰²⁷⁾은 해방기와 전쟁기 서정주 시편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남풍』은 전주 지역 문인들의 문학 동인지다. 제2시집인 『귀축도』를 낸 후

- 24) 여러 논의들이 이 시기를 서정주가 시인으로서의 자신감을 얻은 때라고 하였다. 허윤희(2008, 앞의 논문, 244-245면), 임곤택(2017) 참조
25) 인용한 작품 표기는 현대어 표기가 아닌 발표 지면을 따른다.
26) ‘에비는 종이였다’로 시작하는 서정주의 「자화상」이 『화사집』의 첫 시로 실렸다. 『화사집』 시절의 미당에 대한 논고는 이남호(2008)가 있다.
27) 「밤이 깊으면」의 1행 ‘밤이 깊으면 숙아 너를 생각한다’도 같은 맥락으로 읽을 수 있다.

시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진 서정주는 전쟁을 맞아 부산 요양을 거쳐 고향인 전라도에 와서 교사로 일한다. 후배 시인들과 교류를 가지며 시를 발표하였다. 서정주의 작품 연보에서 빠진 시²⁸⁾가 위의 시다.

薛譚은 奏靑에게서 노래를 배웠드라.
삼년만에 薛譚은 奏靑의 노래를 다아배웠다 생각하고
그만 돌아가려하였드라.
奏靑은 城門박게 薛譚을 진송하고
가락을 가다듬어 離別의 서러운 노래를 불렀드라.
노랫소리는 千里의 수풀을 흔들고
가는 구름을 머물게하였드라.
薛譚은 크게 울고 여기 머물러
다시는 奏靑에게서 떠나가지않았드라.

- 「이별의 노래」, 『전북공론』, 30면, 전문

위 시는 주청이 이별의 노래를 지어 부름으로써 벽담과의 이별을 막아낸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달했다.²⁹⁾ 시인은 감각적으로 사물 너머의 세계를 감지한다. 서정주는 이 세상 너머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으로 작시(作詩)했다. 시인은 예언자의 입장이며 이와 같은 시편으로 「견우의 노래」, 「석굴암관세음의 노래」 등이 있다. 세 편은 같은 해에 발표³⁰⁾되었다.

28) 최현식(2003, 274면)은 서정주 미수록 시 26편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지만 여기에도 「소품초」(1951)는 거론되지 않았다.

29) 시 뒤에 ‘列子湯問第五’라고 붙어 있다. 여기에서 愚公移山(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면 결국엔 뜻을 이룰수 있다는 뜻)이라는 성어가 나왔다.

30) 발표 순서는 6월에 「견우의 노래」(『신문학』 발표), 7월에 「이별의 노래」(『전북공론』 발표), 12월에 「석굴암관세음의 노래」(『민주일보』 발표) 이 해(1946년)에 서정주는 많은 시편을 발표하였다. 허윤희(2008)에 따르면 18편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 여러 수의 시 작품이 『귀축도』에 수록되었다. 그런 다음 서정주는 자신의 시세계를 구축하는 시기를 맞는다. 자신의 시작이 다른 시인들과 변별을 이루어 가는 시기를 거쳤다. 「김소월시론」(『해동공론』, 1947.4.), 「시창작방법론서설단고」

「이별의 노래」를 발표한 『전북공론』은 전북 최초 종합 월간지로, 전북 출신 시인으로 추앙된 서정주에게 청탁하여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서정주는 본고의 발굴 시 「이별의 노래」를 포함하여 19편이나 되는 상당히 많은 시를 발표하였다. 이 시기를 서정주가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 출발점으로 삼을 만하다. 당시 서정주 시의 특징 중 하나가 서사적 경향으로 「이별의 노래」는 그와 같은 이야기 시에 해당한다.

서사지향 시의 특징은 첫째, 인물과 행위가 있다는 점이며 둘째, 시간이 들어있다는 점이다.³¹⁾ 「이별의 노래」에는 주청과 벽담이 등장하고 그들이 노래를 배우고 가르치는 행위가 들어있다. 이러한 인물과 행위의 드러남이 이 시기 서정주의 시의 서사지향을 말해 준다. 노래를 배운 ‘삼년’이라는 시간은 초월의 시간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서정주가 노래한 ‘이별’은 무엇일까? 선부른 판단을 유보하고라도 갑작스런 해방과 더불어 입화와의 활동을 중단하고 새로운 지향을 찾던 서정주에게 ‘이별’은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벽담이 이별한 주청을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서정주도 떠나되 떠나지 못할 무엇에 천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귀족도』 시편에서 순이, 영이, 팔만이, 복동이 등 과거 고향의 모습³²⁾이기도 하다. 이별하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서정주의 이중적 태도의 귀결은 초월성 추구로 이어졌다.

(『문예』, 1948.8.), 「시와 시평을 위한 노트」(『민성』, 1949.6.), 「조선의 현대시-그 회고와 전망」(『문예』, 1950.2.) 등은 서정주의 詩作 원리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발표된 글들이다.

31) 고희진(1995, 124-127면)은 한국 현대시의 서사지향성이 두드러진 작가로 김동환, 백석 등을 들면서 서사지향적 시의 특징을 설명하였는데 ‘시간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고는 서정주 발굴 시의 특징을 밝히는 논의이므로 시간성보다는 인물과 행위의 측면에서 서사지향성을 논의하였다.

32) 극명하게는 죽음을 노래한 시편들을 이별의 대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시어를 찾으면 이렇다. ‘잊어버리자. 잊어버리자/히부안 종이등불밑에 예비와, 예비와, 계집을,/그들의 슬픈 습관, 서러운 언어들,/ 찌긴 흰옷과 같이 벗어 던져 버리고(「역려」, 4연)과 ‘잔치는 끝났드라. 마지막 앉아서 국밥들을 마시고(「행진곡」, 1행)’ 등이 있다. 이 시기 서정주 시에서 ‘고향’은 이별하되 다시 찾는 영원성을 담은 시원의 공간이기도 하다.

3.2 삶의 구체 상

잔치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는 서정주의 주제 중 하나였다. ‘이별’한 후 시인은 중심을 벗어나서 주변에 서고 그 주변에서 묵도한 세계로부터 구체적인 ‘생명’³³⁾을 발견한다.

쭈나무는 陰三月에 호박빛의 엄이 돌는 올타리의 나무입니다
忠淸道 全羅道の 村 마을에는 집마다이 나무가 서 있습니다
마을의 아낙네들은 그 향기를 그려하여 엄 돌기가 바쁘게
우러러 보다
마침내는 그 새 싹을 따 말합니다

- 「쭈나무」, 『전통』, 20-21면, 1-5행

촌마을의 이야기다. 시인은 작은 마을에서 쭈나무와 아낙네를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서사지향인 썸이다. 시인은 ‘쭈나무는 이 나라에 살림살이³⁴⁾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있을 때부터 그 옆에 절로 돌는 나무입니다(11-12행)’라고 한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인 아낙이 쭈나무 향기를 그리워하고 쭈나무 싹이 여름, 가을, 겨울까지 아낙에게 향기를 전하는 선순환을 표현한다. ‘뺨 부비며 열려 있는 꽃봉오릴(『密語』, 6행)’ 보듯 쭈나무 향기를 맡는다.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서정주의 「무등을 보며」를 읽었다.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를 노래하는 시편으로부터 「골목」까지 읊을

33) ‘생명 의식’은 서정주의 시세계의 주류로 알려져 있다. ‘생명 의식의 발로’는 『남풍』의 권두언에도 명시되어 있다. 시를 짓는 사람들의 활동이 ‘韓國의 諸般 生命營爲의 基盤에 어긋나지 않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고 하였다.

34) ‘살림살이’는 서정주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시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고향’의 발견이며 서정주가 서구적 취향(탈향)에서 귀향을 통해 자신의 시세계를 확보해 나간 것으로 읽은 논의(고봉준, 2015)도 있다.

수 있다.³⁵⁾ 날마다 드나드는 ‘가난하고 외롭고 이즈러진 사람들이 웅크리고 땅보며 오고 가는’ 골목은 시인이 발견한 삶의 진면목이다.

본고의 발굴 시 중 하나인 「낮 하늘 아래서」에도 ‘살림살이’라는 시어가 등장한다. 아이들에게 ‘네 별을 찾으라’고 권유하는 교훈이 담긴 시편에서도 삶의 구체 상은 빠지지 않는다. 해방과 전쟁을 겪으면서 느낀 서정주의 삶의 구체 상은 시어를 통해 확인된다. 게다가 1.4후퇴 시기 전주에서 전주고 교사를 지내기도 한³⁶⁾ 서정주는 전주 삼양농원에 갔다가 술참 때에 농원 주에게 「태산목련송」을 지어 주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 서정주의 시는 서사 지향과 더불어 삶의 구체 상으로 나아간다.

발굴 시를 통하여 볼 때 이 시기 서정주는 ‘역설’을 통해 전통 시법을 실현하고 있다.³⁷⁾ 서정주에게 생명은 일시적이고 변하는 것이 아니다. 무한한 생명들의 연속이어서 변하지 않는 초월의 세계, 가능성의 세계에 닿아 있다. 서정주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시간을 초월하는 것과 마주하여 생명사상을 내놓기에 이른다. 생명의 ‘구체성’과 ‘영원성’을 하나로 엮는 것은 어찌 보면 모순이면서 역설처럼 보인다. 살림살이라는 구체적 삶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영원 초월로 향하고 아이들의 생명력을 칭송하면서 어둠과 죽음의 이미지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정주는 역설을 통한 전통 시법으로 자신만의 시세계를 구현할 수 있었다. 전주의 목련을 보면서 인도와 태산의 심상으로 나아가고 음삼월 죽나무의 싹(생명의 시작)과 죽여 말린 향내(생명의 끝)를 동시에 표현한다. 향기로운 처녀가 크고(현실) 동시에 떠났으나 떠나지 못한 주청의 노래 가락이 한 자리에 있다(전설). 이러한 역설 시법은 이 시기 서정주의 시적 자아가 발견한 일종의 ‘극복 테제’임이 분명해 보인다.

35) 「무등을 보며」는 『서정주시선』에, 「골목」은 『귀족도』에 수록되었다.

36) 최명표(2010)는 한국 전쟁 시기 전북 매체를 살펴보는 자리에서 서정주에 대하여 지역 작가의 반열에 등재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종군 작가로서 창작한 작품 「낮 하늘 아래서」를 발굴한 바 있다.

37) 서정주의 ‘생명’은 ‘영원성’을 이해하는 개념(허요한, 2016)이라고 본다면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발굴 시에 나타난 ‘역설’, ‘극복’ 등을 추가하여 논의에 올릴 수 있다.

3.3 지역 색 시어 표상

삶의 구체적 진술은 ‘인간’과 ‘생명’ 본위에 충실하고자 한 서정주 시세계 구축 단계를 실증한다. 인간은 항상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 해방기와 전쟁 시기의 작가들의 행보와 활동이 자칫 중앙 위주의 연구로 인하여 소홀하게 취급된 점이 없지 않다. 인간 생명의 구체 상이 지역 매체 발굴로 의미를 얻을 차례다. 본고에서 발굴한 시편들은 지역에서 발행된 매체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우선 시어 두 개를 짚을 수 있다. ‘전주 삼양농원’과 ‘충청도 전라도 촌마을’이다. 전자는 「태산목련송」에, 후자는 「쭈나무」 시편에 들어 있다. 새로운 곳에서 본 새로운 것을 시인의 눈은 여과 없이 표현했다. 쭈나무가 충청과 전라에만 자라는 나무인지 모르겠으나 한반도 남쪽 지역에 흔한 모양이다. 시어 ‘충청도 전라도’는 「밤이 깊으면」³⁸⁾에도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묘 유월 이십팔일 저녁 술참때 전주 삼양농원에서 태산산 백목련의 그늘에 놀다가 즉 이 몇줄을 얻어 동농원주에게 준다.

멀리 오는 日月風雨
얼버무려 얼려 두고
두고 두고 배래보고, 우리보라 함이어늘
오히려 애뵈 情이 그 그늘로 들어가다.

나비인양 꽃관속에 코를 묻으면
中華 數 萬里를 어깨 아래 품고 섰는
泰山 높은 峰의 곱고 매운 내음새여.
玉京에 가까운 곳 절로 어린 내음새여.

38) 숙아// 이 밤속에밤의 바람벽의 또밤속에서/한마리의 산 귀뿔이와같이 가느다란 육성으로 나를 부르는 것./충청도에서, 전라도에서, 비나리는항구의어느내외주점에 서,(「밤이 깊으면」, 11-12연)

애살꽃이 두 귀 모아 눈 감어 기울이면
泰山 깊은 골에 西王母의 단 숨 소리.
하늘 그려 속삭이는 西王母의 노랫소리.
印度, 支那 半萬年이 이 몇 때문이리라.

木蓮아, 木蓮 희푸르고 그리움에 높이 높이 맺고
피는 木蓮아 木蓮,
하늘이 네 고향인 泰山木蓮아.

소슬한 思想같이 어이 내게 이르르고.
印度의 伽陵頻伽, 太陰王岳 노루들도 네 말이면 듣고
자고 자고 일어 살으렸다.
노래하고 새끼치고 뛰고 날고 살으렸다.

다스릴길 바이 없는 사랑일래 사랑일래
泰山 떠나 白頭 건너 蓬萊거처 에 왔는고.

木蓮아 木蓮, 희다 희다 지치어서
하늘빛에 잦아드는 木德의 꽃아.
堯舜직 기꺼움이 그대 때문이니라.

- 「태산목련송」, 『남풍』, 2-4면, 1951. 11.7,
‘전주 삼양농원’ 밑줄은 인용자

자연을 노래하되 자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을 노래하되 지역에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시세계를 ‘영원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³⁹⁾ 전주 한 농원의 목련을 태산의 목련으로 그리는 시인은 목련의 덕을 칭송하고 봉래를 거쳐 요순의 기쁨에 이르렀다. 서정주의 영원 시편 중 ‘태산’은 약간 비껴 나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시의 공간을 동북아시아로, 시간

39) 서정주의 ‘신라정신’과 ‘질마재’를 영원성의 시공간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을 요순시기로 뽑고 있는 점에서 흥미롭다.

모든 발굴 시편에 숫자 ‘삼’이 들어 있다. ‘삼년만에 벽담은 주청의노래를 다아배웠다 생각하고’(「이별의 노래」, 2행), ‘삼월 새 하늘일래 대수풀은 빛나네.’(「소품초」, 10행), ‘음삼월에 호박빛의 엄이 돋는 올타리의 나무입니다’, ‘새삼월이 올 때까지도 그 향기가 그 집에 있게/됩니다.’(「쭉나무」, 1행과 9-10행) 숫자 ‘삼’을 담은 시편들을 모아서 서정주의 영원 세계를 논의할 만하겠다.

이별을 고하고 다시 ‘포범의 위장을 지닌(逆旅)’ 시인이 ‘시퍼런 단도의 날을 닦아(「밤이 깊으면」)’ 영원의 세계(중화, 인도, 봉래, 백두, 요순)에 닿았다. 영원 시편 탐색의 과정에 「태산목련송」이 놓여 있다. 이 시편을 서정주 논의에 추가해야 함은 당연해 보인다. 이처럼 서정주의 지역 색은 영원 세계를 향해 있다. 서정주의 서사지향 특성이 삶의 구체성 안에 담겨 있는 점이 지역 색의 발현이라는 양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3.4 발굴 시의 의미와 시사점

지금까지 발굴 시 다섯 편의 특징을 중심으로 서정주의 해방기와 전쟁기 시세계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 시기는 서정주가 『화사집』 출간 이후 시적 자의식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던 때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발굴 시를 들여다보니 서사지향, 삶의 구체 상, 지역 색의 시어 표상 등을 논의에 올릴 수 있었다. 이 세 틀은 논의를 위하여 나누었을 뿐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각 시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들이다.

먼저 ‘서사지향’은 서정주가 선배 시인들의 영향 속에 자신의 시의 모습을 세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 같다. 1946년 많은 시편을 창작하고 발표하면서 서정주는 인물과 이야기가 담긴 자신만의 특성을 구체화하게 된다. 두 번째 특징인 ‘삶의 구체 상’은 시대적 특징과 관련된다. 한국사에서 가장 혼란했던 때가 바로 해방과 전쟁 시기일 수 있다. 삶과 죽음이 한 자리에 있는 그때 서정주는 다시 구체적인 생의 모습으로부터 ‘생명의식’을 끌어내었다. 세 번째, ‘지역 색’은 본고의 발굴 시만의 특징이면서 어쩌면 서정주가 표방

한 영원성과 닿아 있다. 지역성의 본질이 영원성에 닿아 있다는 언명은 서정주 시세계를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본고의 발굴 시들은 모두 지역에서 발간된 책자들에서 발견했다. 서정주가 서울에 정착하기 전의 행적에 따라 기고된 시편들이다. 이 시들에는 충청도와 전라도, 그리고 전주 농원이 등장한다. 이러한 지역 지명은 지역으로 끝나지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이후 서정주가 ‘서울 여자’에서 ‘고향 여자’로 ‘중앙’에서 ‘신라’, ‘질마재’로 자신의 시학을 추구하는 것과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36년 등단 후 1941년 첫 시집을 낸 서정주는 해방을 맞으며 동양 전통 세계에 친착하면서 전환기에 들어선다. 발굴 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물과 행위가 드러나는 서사 지향적 표현이 도드라지는데 「이별의 노래」, 「쭈나무」 등이 그러하다. 「이별의 노래」가 전설적 세계를 담고 있다면 「쭈나무」는 「골목」 시편처럼 삶의 구체적인 현재의 모습을 담았다. 생활 세계가 담긴 다른 발굴 시는 「낮 하늘 아래서」이다.

서정주는 전쟁기 이후 줄곧 대학에 근무하면서 문단 주류로 활동하였다. 중앙집중적 문학 연구는 서정주가 서울을 떠난 시기에 발표한 작품과 활동에 대해 소홀히 다룬 감이 없지 않다. 이 작품들이 왜 서정주 작품 연보에서 누락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발굴 시들이 서정주가 시적 전환기이며 활발하게 자신의 시세계를 구축하던 시기에 작시된 작품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후 서정주의 시세계를 설파할 때 본고에서 발굴한 시편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선명하게 서정주의 시적 전회와 전망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본고는 지금까지 서정주 시세계에서 누락되어 있던 5편의 시편을 발굴하여 서정주 초기 시의 특징과 시세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발굴 시편이 서정

주 시세계에서 가장 불투명했던 해방기와 전쟁기의 시작(詩作) 활동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좋은 과제로 수용할 만하다. 본고는 발굴 자료의 서지 사항과 발표 매체의 특성을 검토하고 발굴 시의 경향과 특성을 개괄하였다.

발굴 시는 1946년부터 1952년까지 전주 지역에서 발간된 매체에서 발견된 것들이다. 이 시기는 서정주가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새롭게 모색한 시기로 자아 부정으로부터 생명 발견, 고향과 동양 전통, 영원으로의 회귀 등 다층적인 경향이 혼재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양상을 서사 지향, 생활의 구체상, 지역 색 시어 표상 등으로 논의에 올렸으나 이와 같은 체계가 온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경향과 지향을 드러냄으로써 서정주 시세계의 성찰과 모색 시기임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발굴 자료가 서정주 시세계의 빈틈을 메우고 서정주 시 논의를 재구성할 촉매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밖에도 지역에서 발표된 매체(『국방』 1949 등)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서정주의 시편이 발견되는 중이다. 만일 일정한 시기동안 더 많은 서정주의 작품이 발견된다면 본 논의는 재론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문학 연구가 앞으로 잘못된 연보와 서지사항을 반복하는 오류에서 벗어나 실증 연구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증언대 역할을 한 셈이다. 앞으로 미발굴 작품 발표 매체를 정돈하고 한국문학사를 온전히 하는 일에 투신하는 것을 본고의 후속 과제로 남긴다.

참 고 문 헌

기본자료

- 『전북공론』, 1946. 7. 1.
『남풍』, 1951. 11. 7.
『전통』, 1951. 12. 23.
『전북일보』, 1952. 8. 15.
서정주 전집, 민음사, 1998.
서정주 전집, 은행나무, 2015.

논저

- 고봉준(2015), 「탈향과 귀향의 형이상학」, 『한국문학연구』 48,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53-86.
고형진(1995), 『한국 현대시의 서사지향성 연구』, 시와시학사.
송희복(1991), 「서정주 초기시의 세계」, 『현대시학』, 현대시학사.
이남호(2008), 「예술가의 자아 인식-『화사집』 시절의 미당」, 『한국시학연구』 제28호, 한국시학회, 155-173.
임근택(2017), 「해방기 서정주의 선택과 ‘민족’의 재구성」, 『한국학연구』 4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9-28.
최명표(2010), 「한국전쟁기 전북 지역 매체와 문학 -『전북일보』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19, 영주어문학회, 89-119.
최명표 편(2006), 『김해강시전집』, 국학자료원, 801-802.
최현식(1997), 「전통의 변용과 현실의 굴절 1945-55년 서정주의 시집 미수록 시 연구」, 『문학평론』 창간호, 범우사, 275-313.
하채현·황태목(2018), 「1950년대 진반기 전주 지역 동인지 연구」, 『국어문학』

67, 국어문학회, 291-324.

한국문인협회 전북지회편(1996), 『전북문학사』, 신아출판사.

허요한(2016), 「서정주의 생명과 논의와 시간성의 의미 고찰」, 『한국문학연구』
52,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81-117.

허윤희(2008), 「해방 이후의 서정주 1945-1950」, 『민족문학사연구』 36, 민족
문학사학회, 236-264.

【Abstracts】

A Study on the Excavation of Poetry in Seo
Jeong-ju

– from the time of liberation to the period of the Korean War

Ha, Chae-hyun·Hwang Tae-muk

The article discovered five missing poems from around in the poet's world of Seo jeong-ju. These poems show the characteristics of early Seo Jeong-ju's works and changes in the world's view. It is also considered a good task in that the excavated specimens show the world's most opaque liberation and wartime activities in the city of Seo jeong-ju. This article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rge in the excavation data and the presentation media, and outlined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etry that was excavated. The digs were found in media published in Jeonju from 1946 to 1952. The titles of the works are <Distinguistic Songs>, <Jook Tree>, <Taesan magnolia-Songs>, <Sort out of Props>, and <Lower in the Day Sky>. This was a time when Seo sought his status as a poet again, mixed with multi-layered tendencies such as finding life from self denial, returning home and Asian traditions and eternity. The article included such aspects in the discussion, such as the direction of the introduction, the details of life, and the color of the local. However, by expressing trends and directions, he wanted to show that it was time to reflect and explore the world in Seo Jeong-ju. The article will serve as a catalyst to fill the gap in the world in Seo Jeong-ju and

reconstruct the discussion in Seo Jeong-ju. Hopefully, the completion of the annual production will be increased, triggering a complete study of Seo Jeong-ju.

keyword : Seo Jeong-ju, excavation, liberation Period, war period, a time of search, epic orientation, locality, catalyst, completion

이 논문은 2018년 10월 1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8년 11월 9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8년 11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